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 연구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글은 통일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수업을 살펴보고 대학의 종교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는데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수업모형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중등학교 수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종교교과 수업에 사용된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수업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여느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통일교계 중등학교도 대학입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종교교과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통일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수업을 위해 작성된 교수·학습지도안에 적용되는 수업모형은 교육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있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것이었다. 즉, 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은 학습목표, 수업방식, 도입-전개-정리로 구성되는 교수-학습활동, 형성평가 등을 간단히 서술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 중등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수업모형과 교수설계 등을 활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선의 수업모형과 교수설계 교육은 현직 교사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교교과, 교육과정, 수업모형, 수업사례, 교육방법

I. 서 론

이 연구는 ‘종교교사 양성과정과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대주제 아래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대주제는 구체적으로는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과가 어떠한 종교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각 종단에서는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 “종교 교사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방법에 대해 함께 연구” 하고자 하는 것이다.¹⁾

필자가 맡은 것은 통일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 연구”이다. 이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를 분석하여 중등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과 교육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대학의 종교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는데 실마리를 얻으려는 것이 이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

필자의 연구는 원불교 측의 주제인 “종교교과 교수-학습의 원리와 교수법 사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업모형은 교수-학습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교과 교수-학습의 원리와 교수법을 탐구하고 이에 근거한 수업모형을 만들어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실행한 후 그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 수업모형의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셋째, 중등학교 수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종교교과 수업에 사용된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수업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넷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할 것이다.

II. 종교교과의 성격과 수업모형

1. 종교교과의 성격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한 국가 수준의 중등학교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그 성격은 학생들이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과목”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과 종교’ 과목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해답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²⁾

1)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http://www.kasre.or.kr>

2007년 중등학교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은 1997년 교육부가 제정한 제7차 ‘종교’ 교육 과정을 일부분 개정한 것으로서 종교교과를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신앙적 종교 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따른다.³⁾ 2007년 개정 ‘생활과 종교’ 교육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⁴⁾

교육인적자원부의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일반적 목적은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 중 “건전한 종교관 정립”이라는 목적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종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 문제에 대한 종교적 처방을 이해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이는 지적 ‘이해’를 가치관 정립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목적도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 목표는 6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8개 단원이 지향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이다.⁵⁾ 이 세부적 목표도 대부분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인간과 종교”, “종교 현상의 이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세계의 종교와 문화”,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의 이해”,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의 8개 대주제로 구성된다. 8개의 대주제는 4~6개의 소주제로 세분된다.⁶⁾ 이들 8개의 대주제와 4~6개의 소주제는 거의 모두 ‘인지적 이해’를 위주로 한다. 또한 그 내용이 종교학의 주요 영역을 간추려 놓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다. 중고등 학생들이 이 모든 내용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하겠다.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자.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수·학습 방법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생활과 종교”의 ‘성격’ 참조.
 -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4쪽.
 - 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생활과 종교”의 ‘목표’ 참조.
 - 5)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한 자기 성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가르침과 의례, 종교 공동체를 이해한다. 나.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과 자연관을 기른다. 라. 한국의 토착 종교와 전래 종교의 전개 및 상호작용과 이용과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을 통해 삶의 목표를 정립한다. 마. 종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는다. 바. 각 종교의 경전, 교리, 역사를 통해 종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생활과 종교”의 ‘목표’ 참조.
 - 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생활과 종교”의 ‘영역별 내용’ 참조.

- 가. 교과서에서 제시한 주제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식 수업을 전개하되, 종교 와 관련 된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시한다.
- 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종교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하고, 종교 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 다. 학생들이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발언에 대해서 서로 자제하 여 화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라. 다양한 종교적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종교에 관 한 견해 차이를 포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마. 종교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을 골고루 활용하도록 하고, 토론 학습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유도한다.
- 바. 수업하기 전에 끝맺는 말과 수시 평가 내용 및 과제를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 과 평 가를 연계시킨다.⁷⁾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은 토의식 수업과 일상생활의 경험 중시, 대화를 통한 의견 발 표, 견해 차이의 포용(의견 존중), 영상물 활용, 수업과 평가의 연계 등을 교수·학습 방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생활 경험과 영상물을 활용한 대화와 토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논의하면서, 그 초점이 ‘이해’ 위주임을 살펴보았고, 학습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 특히 생활 경험 과 영상물을 활용한 대화와 토의로,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사와 학생, 수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 정되므로, 수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 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종교의 가치와 의미를 판 단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같은 항에서 이어지는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는 자세를 갖게” 하 는 것 그리고 ‘라’항의 “다양한 종교적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 도록 유의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7차 종교교과와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종교교과 수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었다. 그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종교 문제들을 주제화하도 록 한다.
- ② 모든 주제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 ③ 논의들은 단일한 해답으로 정리하기보다 열린된 물음인 채 스스로 지속적인 탐구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 ⑥ 개개 종교들에 대한 이해는 선택된 주제의 설명 과정에 용해되도록 한다.

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생활과 종교”의 ‘교수·학습 방법’ 참조.

- ⑦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수용하여 논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 ⑧ 종교문화의 의미를 실존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 문화적 차원과 연계시키도록 한다.……⁸⁾

이는 종교와 관련된 생활 현실의 문제와 사례를 수업의 소재로 삼고 이에 접근하며 삶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열린 물음으로 남겨놓아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삶으로 이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인다.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첫째, “논술식을 활용하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태도를 평가”한다. 둘째, “관찰과 면접, 논술과 독후감 등”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수업 참여 의지”도 평가한다. 셋째, “지필 검사”, “자료나 사례의 수집과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과 토론, 발표 능력 등”을 평가한다. 넷째, “감성, 지적 능력, 의지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느낌, 종교 문제의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 바람직한 종교관과 인생관에 대한 결심 등 정의적인 내용”을 평가한다.⁹⁾

이는 전통적 평가 방식인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관찰, 면접, 과제물, 발표, 토론 등으로 구성되는 수업 활동의 전체를 통해 능력, 태도, 의지, 종교관, 인생관 등 지정의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라는 것이다.

2. 종교교과와 수업모형

수업이란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수업은 학생의 학습을 돕는 모든 활동이다. 이러한 수업 현상을 논의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수업 현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체계화한 것이 수업모형이다.

‘수업모형이란 복잡한 수업현상이나 수업사태를 그 특징적 사태를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수업현상을 구성하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킨 형태이다.¹⁰⁾

수업모형이란, 교사 수준에서의 실제 수업 사태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대안적 구성의 틀을 의미한다. 즉 교과와 성격 또한 수업목표 및 학습과제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학습 목표·내용·방법·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교수-학습장면을 교사로 하여금 실제 수업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준거체제라 할 수 있다.¹¹⁾

8) 정진홍,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24-25쪽.

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생활과 종교”의 ‘목표’ 참조.

10)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서울: 배영사, 198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2』(서울: 하우동설, 1993), 1680쪽.

11) 현종익·이학준 외, 『교육학 용어사전』(서울: 동남기획, 2002), 360-361쪽.

수업모형은 수업을 설명하고자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수업모형은 수업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더 나은 수업을 원한다면 해당 교과목에 적합한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업모형 또는 교수-학습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R. Glaser의 교수학습모형, R. M. Gagné의 교수학습모형, J. B. Carroll의 학교학습모형, B. S. Bloom의 완전학습모형, D. P. Ausubel의 유의미학습모형,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모형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이 중에서 대표적 수업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들어보자. 글레이저의 수업모형은 수업목표, 출발점행동 진단, 학습지도, 학습성과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다. 교육개발원의 수업모형은 계획단계(학습과제의 분석, 수업계획, 실천계획), 진단단계(진단평가, 분류, 심화교정학습), 지도단계(도입, 전개, 정착), 발전단계(형성평가실시, 평가결과 토의 분류, 심화보충학습), 평가단계(총괄평가, 결과검토, 결과활용)로 구성된다. 비교해보면 교육개발원의 수업모형은 글레이저의 수업모형을 기초로 하되 수업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업은 학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수업은 교사가 어떠한 목적을 의도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과정이다. 수업에는 교육과정요인, 교사요인, 학생요인, 환경요인이 작용한다. 이들 요인에 따라 수업모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업모형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즉, 수업의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과 방법, 평가를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모형 외에도 각 과목마다 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감안하여 개발된 수업모형이 있다. 더구나 학습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수업모형은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¹³⁾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요인도 중요하다.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수업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학생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 수준이 수업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환경요인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업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교사, 학생, 수업환경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교육 목적-목표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인지적 영역에서의 목표는 B. S. Bloom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분류되고, 정의적 영역에서의 목표는 D. R. Krathwohl, B. S. Bloom, B. B. Masia가 개발한 정의적 영역 교육목표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 인격화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교육목표는 행동요소와 연관 지

12) 전성연 편,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서울: 원미사, 2003).

13)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고양: 인간사랑, 2007), 2부 5, 6, 7장 참조.

어 그 특징이 설명된다.¹⁴⁾ 국가적 수준에서 설정된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구체적 목표 6가지는 인지적 영역에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이해’를 위주로 한 것이다.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8 가지 내용 영역은 교육내용을 크게 분류한 것일 뿐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교단별로 발행되는 교과서에서 단원과 장의 구성과 서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1960년대부터 교수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교수나 수업에서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교수설계 또는 수업설계가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수설계나 이와 관련된 수업모형이 서술되지 않았다.¹⁵⁾ 최근에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J. M. Keller의 ARCS이론을 중등학교 종교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ARCS이론은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4범주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모형이다.¹⁶⁾

Ⅲ. 종교교과 수업사례 분석

1. 수업의 현실

수업사례를 논하기 전에 중등학교 수업의 현실을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중등교육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대학 입시라는 중등학교의 외적 환경에 기인한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두고 학업성적으로 서열을 매김으로써 경쟁을 부추기는 파행적인 교육을 실시해온 것이다. 이러한 중등학교의 비정상적 교육상황은 종교교과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중등학교에서 종교교과의 위상을 살펴보자.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종교교과는 교과재량활동 중의 선택 과목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중학교 종교교과에 대한 구체적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것을 준용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중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의 하나로 종교교과가 개설될

14) 김재춘·부재율·소경희·채선희,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서울: 교육과학사, 2006), 260쪽.

15) 고병철, 『중등학교 종교 교과의 교수·학습방식』, 『교육연구』 43집(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08), 83쪽.

16) 고병철, 위의 글, 84-86쪽.

수 있었다. 고교 2~3학년에서는 일반선택교과 중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었다. 종교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의 활동인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¹⁷⁾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에서 종교교과가 가능하고 모든 교과가 선택교육과정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종교교과는 교양 선택교과가 된다. 물론 종교교육은 교과 외의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¹⁸⁾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가 역기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학기당 교과목 수를 줄이고자 여러 학년이나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특정 학년이나 학기로 집중하여 이수하는 ‘집중이수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종교과목이 특정 학기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높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입시위주 과목(활동)에 쏠릴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중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와의 밀접성에 따라 교과목의 비중이 달라져 종교교과가 위축되고, 수업이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재량활동과 특기적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비현실성도 있다. 입시 위주의 중등학교 교육에서 종교과목이 제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¹⁹⁾ 대학 입시를 향한 관문에서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는 종교교과가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비중 있게 취급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비인기 과목일 수밖에 없는 종교교과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파행적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학원 강의 사이에서 주객이 전도된 채로 살아간다. 그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의 절반을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에서 잠 보충하고 상쾌하게 학원가야” 하는 상황이다.²⁰⁾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교육제도의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학생들은 종교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가 종교수업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은 그 중의 일부이다.

종교수업에 대한 흥미 여부를 물었을 때, 조사대상 학생의 37%가 종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38%가 흥미를 느끼며, 24%가 다른 수업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²¹⁾

1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16-128쪽.

18)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 고양: 흥애원, 2009),

19)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5쪽.

20) <잠자는 학교: [1]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조선일보>, 2010년 9월 6일자, A5.

21)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05;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46(한국종교학회, 2007), 15-16쪽, <표 10> 참조.

종교 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정서, 인성, 교양의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 49%이나, 필요한 이유를 모르거나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41%가 된다.²²⁾

종교 수업의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수업이라고 여기는 학생이 38%이고, 대화 중심이라는 학생이 33%, 집단토론 중심이라는 학생이 4.5%, 시청각교재 중심이라는 학생이 20%였다. 그러나 자신의 교수방식이 강의중심이라는 교사는 24%, 대화중심이라는 교사는 22%, 집단토론 중심이라는 교사는 4%, 시청각교재 중심이라는 교사는 48%였다.²³⁾ 이는 교사는 종교 수업을 대화와 집단토론 및 시청각 교재 중심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도 학생들은 일방적인 강의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²⁴⁾

종교교과 수업은 이수 여부만 표기할 뿐 성적을 등급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학생들로서는 내신과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종교교과 수업은 이러한 입시준비와 무관한 과목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입시나 성적경쟁과 무관하게 또한 자유롭게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와 연관된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수업사례 분석

필자는 통일교계 종립학교의 수업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먼저 종교수업 담당 교사들에게 이 연구의 성격을 소개하고 중등학교 수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교수·학습지도안과 관련 교육 자료를 부탁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교사들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여 수업상황을 파악하였다.

필자가 수집한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안은 ‘단원명’, ‘단원의 구성’, ‘학습목표’, ‘지도상의 유의점’과 함께 매 수업시간 별 진행단계를 ‘도입 - 전개 - 정리’로 나누고 이에 따른 시간을 배정하여 ‘교사활동’, ‘학생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그리고 ‘형성평가’를 서술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평범한 교수·학습지도안이었다. 교수·학습이론이나 교육공학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수업현상을 구성하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킨 형태”로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수업모형에 따른 종교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지 못 하였다. 즉, 교사들은 수업 시간마다 특별한 수업모형을 염두에 두고 수업설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연간 또는 학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수업 시간에 맞춰 다듬어서 단순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은 학습목표, 수업방식, 도입 - 전개 - 정리로 구성되는 교수·학습활동, 정리, 형성평가 등을 간단히 서술한 것이

22) 강돈구 외, 앞의 책; 고병철, 앞의 글, 16쪽, 〈표 11〉 참조.

23) 강돈구 외, 위의 책; 고병철, 위의 글, 18-19쪽, 〈표 15〉와 〈표 16〉 참조.

24) 강돈구 외, 위의 책; 고병철, 위의 글, 18쪽,

었다.

이 교수·학습지도안에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명상자료, 체험중심의 심성교육자료, 인물학습자료,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 성교육자료, 신문, 만화, 다큐멘터리, 종교 관련 동영상 등이다.

그러면 통일교계 종립학교의 교실에서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았다.

ppt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영상물을 시청하는 수업
프린트물을 활용하는 수업
녹음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는 토론식 수업
모둠별 활동을 하는 수업
명언이나 명구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업
활동지를 사용하는 수업²⁵⁾

대체로 학습 내용을 보기에 편리하도록 요약한 ppt 자료를 중심한 강의식 수업이 많았다. 또한 칠판에 주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루어지는 판서중심 수업, 시청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수업,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문답하거나 토론하거나 모둠활동을 하는 수업 등이 있다. 교사에 따라서는 명언이나 명구를 활용하는 수업도 있었다.²⁶⁾

종교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교과의 목

25) 예를 들면 역사 관련 수업에서는 “나의 나무” 활동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나무의 뿌리-줄기-잎 부분에 표시해보는 것이다.

26) 〈오늘의 명언 수업〉

1. 지도방안: 1) 날짜와 오늘의 명언이라고 칠판 왼쪽 위에 쓰고 다함께 큰소리로 읽는다. 2) 명언과 관련한 생활 이야기를 한다. 3) 때에 따라서는 명언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경험담을 발표하게 한다.

2. 사례: 10월 7일 오늘의 명언

1) “누구나 25세에는 재능이 있다. 문제는 그 재능을 50세에도 유지하는 것이다.”-드가(화가)-

2) 생활 이야기: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완벽한 연주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연주회를 감상한 한 평론가가 그를 급제기 최고의 음악천재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안 음악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재라고? 나처럼 3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4시간씩 연습한다면 누구라도 천재가 될 수 있지!’ 이는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사라사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의 배후에 숨어있는 노력을 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재능만으로 남에게 보여줄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과 내용을 고려한 수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들은 특정한 교수 방법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혼용하는 수업으로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애쓰는 실정이다.

수업 내용이 재미없으면 종교 수업은 ‘자는 시간’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 점을 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업을 할 것인지에 고민한다. 어느 교사는 “이벤트 수업으로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뒤집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에 따라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호응도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놀이와 오락의 요소를 가미한 수업을 해야 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그러한 교사는 인기가 많다. 교사가 교육적 내용과 놀이적 요소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영화, TV, 만화, 게임 등의 분야를 살펴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수업에서 활용한다.²⁷⁾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격려와 주위 교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교사도 있다. 반면 일방적 강의, 주입식 학습, 단조롭고 지루한 수업, 특정 교단을 선교하는 수업에는 학생들이 거리를 두게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은 종교교육보다는 교양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수업을 원한다. 이에 부응하여 종교교과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인성교육을 목표로 삼아 학생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수업의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느 교사의 경우, 한 학기 동안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학습지도안에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이 들어있었다. 예를 들면,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라는 소단원의 수업에는 ‘서로 달라서 좋은 친구들’이라는 인성교육 자료를 구비해놓고 있었다.

중등학교의 일반 교과가 지식을 중시하듯이, 종교교과도 “종교에 관한 교과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종교적 지식을 중핵요소로 삼아 “지적 능력과 안목”을 형성하는 방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심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교사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명언수업을 좋아하기에 이를 통해 인성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3학년 학생들이 신화에 흥미를 보이는 것에 착안하여 종교와 신화를 접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오늘의 중고등 학생들은 종교적 내용을 위주로 하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신앙과 신념에 관한 수업이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그

27) 백영균, 『에듀테인먼트의 이해와 활용』(서울: 정일, 2005), 67쪽.

28)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3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78-79쪽.

런지 종교 수업을 거북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교과서에 맞춰 학년 별로 초점을 달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에서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2학년에서는 세계종교에 그리고 3학년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기도 한다.

IV. 논의와 결론

1. 논의

현행 중등학교 종교교과 교육과정은 종파적 신앙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어느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통일교계 중등학교도 대학입시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종교교과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대안적 방향을 종교성 교육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성은 “종교의 본성 내지는 종교적 진리의 본성을 추구하는 성향”²⁹⁾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성향이다. 이 대안적 종교교육 모형은 신앙심에 비중을 둔 종파적인 종교교육이 지니는 종교적 정조와 실천성을 포용한다. 또한 지식 중심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합리성도 존중한다.³⁰⁾ 그리고 그것을 “전일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초월적 존재로의 각성을 위한 교육”, “직관적 인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¹⁾

통일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수업에 적용되는 수업모형은 비교적 평범한 것이었다. 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은 ‘단원명’, ‘단원의 구성’, ‘학습목표’, ‘지도상의 유의점’과 함께 수업시간 별 진행단계를 ‘도입 - 전개 - 정리’로 나누고 이에 따른 시간을 배정하여 ‘교사활동’, ‘학생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그리고 ‘형성평가’를 서술한 것이었다.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모형에 따른 종교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지 못 하였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내용에 흥미를 지니도록 이끄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학생과 교사 및 교육환경 그리고 수업목표와

29) 박석, 『종교성 교육과 명상』,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학지사, 2007), 97-98쪽.

30)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21쪽.

31)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9-100쪽.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업모형을 채택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부족한 감이 들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발달한 교육공학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수업모형에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알아야 한다.³²⁾ 특히 대학 입시 경쟁에 갇힌 중고등학생들은 종교적 내용에 무관심하기 쉬우므로, 종교교과에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J. M. Keller의 ARCS 모형이다.³³⁾

이러한 종교교과 수업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의 개선과 현직 교사의 재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종교라는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길러내는 교사 양성과정의 교직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교과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교육실습 분야에서 중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이론, 수업모형, 교수설계 등을 논의하고 최신의 교육공학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현직 종교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종교교과 수업은 대학 입시준비와 무관한 과목이다. 이 특성을 살리면, 종교교과 수업이 입시나 서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삶의 문제를 토의하고 그 문제와 연관된 종교적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일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수업은 학교교육 현장에 침입한 학교 외적 요인인 대학입시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교과 교육과정의 모호성이 내재한다. 교사들은 종파적 신앙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 사이에서 인성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분석하면 수업에 적용되는 수업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 통일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모형은 ‘단원명’, ‘단원의 구성’, ‘학습목표’, ‘지도상의 유의점’과 함께 수업시간 별 진행단계를 ‘도입 - 전개 - 정리’로 나누고 ‘교사활동’, ‘학생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그리고 ‘형성평가’로 구성된 비교적 평범한 것이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공학에서 개발된 수업모형과 교수설계 이론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

32) 고병철, 앞의 글, 83쪽.

33) 고병철, 위의 글, 84, 88쪽.

습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등학교 종교교과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의 분야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교사 교육에서 종교교과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이론, 수업모형, 교수설계 등을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현직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재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교육학 분야에서 중등학교의 종교교과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모형, 교수설계, 교수·학습이론을 논의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중등학교 종교교과 수업의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는 연구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문헌

- 〈잠자는 학교: [1]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조선일보》, 2010년 9월 6일자, A5.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05.
-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46, 한국종교학회, 2007.
- 고병철, 「중등학교 종교 교과의 교수·학습방식」, 『교육연구』 43,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08.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양: 흥애원, 2009.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및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김재춘·부재율·소경희·채선희,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석, 「종교성 교육과 명상」,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 백영균, 『에듀테인먼트의 이해와 활용』, 서울: 정일, 2005.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2』, 서울: 하우동설, 1993.
-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1981.
- 전성연 편,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서울: 원미사, 2003.
- 정진홍,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 고양: 인간사랑, 2007.
- 현종익·이학춘 외,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동남기획, 2002.

원고접수: 2010년 11월 22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이재일

- ① 전공: 신학, 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격교육
 -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Instructional Models and Instructional Cases in Religious Subject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lasses of religious subject in the secondary school of Unification Church and to search some tips for improvement of religious teacher training system.

I deal with four issues as follows. First, I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subject in the national level. Second, I investigate the meaning of instructional model. Third, I look into the reality of religious classes and analyze the instructional models of religious classes. Finally, I mention some tips for improvement of the religious teacher training system.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under pressure for college entrance. The religious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 of Unification Church try to communicate with their students by interesting lessons and to focus on character education. In religious classes, the teachers apply instructional models which consisted of learning goals, teaching method, teaching-learning activity of introduction-expansion-finish, formative assessment, etc.

In conclusion, I suggest as follows. Religious teacher training system needs to go close to the reality of secondary school. Religious teachers also need more education about instructional model and instructional design,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Key words: religious subject, curriculum, instructional model, instructional case, instructional method